

디자인 상품에 각인된 '그해 오월'

민중미술가 이상호·디자이너 서동환 협업

머그컵·에코백·천 포스터 등 아트상품 5종 제작
28일까지 은암미술관 '빨간메아리' 전시서 선포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송고한 가치를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아트 상품을 통해서다.

광주를 대표하는 민중미술가 중 한 명인 서양화가 이상호 작가와 디자이너 서동환(광주아트가이드 발행인)씨가 협업해 최근 '오월 정신'을 담은 디자인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이상호 작가는 광주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다. 2017년에는 광주 시립미술관의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응답하라 1987'전에 전정호 작가와 함께 참여해 민중미술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재학 시절부터 걸개그림, 판화, 만장 등 민중미술에 몰두했으며, 1987년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제작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미술인 중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구속 수감 중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항상 삶의 희망을 노래하며 작업 중이다. 그가 투병 중에 그린 대표작 '희망'은 작가가 치료를 받았던 나주국립정신병원에 기증됐다.

서동환 디자이너는 이상호 작가의 대학 후배로 1988년 조선대 미술과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출발은 지난해 열린 이 작가의 전시회였다. 이 작가는 광주 무작사로

터스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당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 민화풍의 문자도 '희망'을 인쇄해 무료로 증정했고,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작가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중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계자와 관광객들에게도 작품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서씨는 오월어머니집 관계자에게 "어머니집을 찾는 이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싶은데 마땅한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아트상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광주 오월정신을 담은 기념품을 제작하기로 하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민중미술 계열 작가가 아트상품을 제작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시제품은 USB 메모리카드, 친환경 에코백, 스마트 인갑과 머그컵, 이중 텀블러, 패브릭(Fabric:천) 포스터 등 모두 다섯 종류다. 디자인은 '희망'을 비롯해 모두 5가지로, 각각의 상품에 적용했다. 'HOPE'는 이 작가의 '희망'을 영문으로 변환해 서씨가 다시 디자인했으며 '오월전적지도'는 이 작가가 지도 형식으로 제작한 '5·18민중항쟁 전적지도'를 서씨가 '세계 평화'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디자인했다.

나머지 두 작품은 서씨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용어인 실타래를 하나씩



광주 동구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오월특별전 '빨간메아리' 전시장에서 최근 개발한 아트상품과 함께 이상호(왼쪽)작가와 서동환 디자이너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작가 제공

풀어낸다면 '평화의 씨'를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평화의 씨', 광주 대중세상의 상징인 '오월 어머니의 주먹밥'이다.

디자인된 시제품은 오는 28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오월전 '빨간메아리'에서 선보인다.

서동환 디자이너는 "지금까지 민중미술 전역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다소 강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아트 기념품 제작을 통해 생활 속으로 들

어가는 섬"이라며 "광주를 찾는 이들의 기념품으로 활용되고 제품화가 이뤄진다면 수익금은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디자인과 제품 등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광주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광주를 알리는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가 능력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겨울 기자



민중미술가 이상호 작가와 디자이너 서동환씨가 협업해 최근 선보인 '5·18민중항쟁 전적지도' 패브릭 포스터(왼쪽)와 '5·18'·'희망'·'HOPE'를 새긴 머그컵, 텀블러.

'개성 톡톡'...장난감 이야기

광주신세계갤러리 28일까지 '토이 스토리'展

작가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담아낸 '장난감 이야기'를 들여다 볼까.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8일까지 '토이 스토리: This is NOT a TOY'전을 연다.

전시는 평면 회화, 사진에서부터 페뮌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정크 아트'(junk art)와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작가들이 손수 제작한 '아트 토이'(art toy)까지 장난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장난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가들의 표현 방식은 다채롭다. 분홍색을 특히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파란색을 선호하는 남자아이를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과 함께 촬영한 유행미의 사진 '핑크 & 블루 프로젝트' 시리즈는 아이의 성별에 따른 문화적 선호와 취향의 차이 그리고 그 변화를 보여준다.

작가의 가족을 움직이는 기계로 만드는 왕지원은 첨단기술에 의해 발전하는 현대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의 인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어린 아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 역설적으로 담아낸다.

세밀한 스크래칭으로 동물 인형을 회화와 입체로 표현한 이시라의 작품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잊혀진 파스칼 동심의 세계를 떠올리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폐전자제품, 버려진 장난감을 재활용해 로봇 작품으로 업사를 링한 포리(Fori Sim)는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 /정겨울 기자



이시라 작 'Lucky Bear'(왼쪽), 일본 메디콤 토이(Medicom Toy)사의 'Be@rbrick'.

이시라는 어른들에게 성숙함을 감오하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가면을 쓴 캐릭터를 통해 표현한다. 구체관절 인형인 '유조'는 어른이지만 어린이의 겉모습을 하고 있다. '유조'는 이분법적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 반항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면 뒤 불안한 표정은 숨길 수 없다.

안광노와 이현희는 '인어아재', '꼭두각시', '부다갯' 등의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역시 작가가 인식한 사회현상을 키네틱적 해석으로 선보인다. 홍석민의 캐릭터는 실존적 불안을 극복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또 다른 세계, 즉 작가만의 우주(universe)를 만들어 삶에 가치를 두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팝아티스트 커즈(KAWS)의 캐릭터 작품과 플랫폼 토이(platform toy)의 대명사이자 대중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베어브릭(Be@rbrick)도 감상할 수 있다. /정겨울 기자

'색'다른 로컬매거진으로 문화지수 높인다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 격월간 '나나' 창간

나주가 색(色)다른 로컬매거진을 발행하고 지역 문화지수를 높인다.

나주문화도시조성지원센터(센터장 김경주 동신대 교수)는 지난 20일 로컬매거진 '나나: 나와 나주가 만나는 시간'(이하 나나·사진) 창간호를 발행했다.

격월간으로 선보일 '나나'는 나주 지역 사람, 장소, 예술, 자연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를 또 새롭게 엮어 로컬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창간호에는 '커버스토리'(cover story)를 통해 남파고택과 고택 속 보물인 100년 된 태극기와 나주소반 등 숨겨진 생활유물을 소개한다. 또한 봉황면 죽석리 구석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고 영산포 흥어, 드들강, 노안성당, 세지·공산면 농부, 혁신도시 상리단길 등 나주



곳곳을 들여다보고 공유한다. '피플'(people)에서는 나주시청 사이클링 장선희 코치와 강릉청년 노건휘씨의 나주에서 1년을 살피고 '나나의 시선'에는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재탄생한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를 담았다. 도시재생 해외사례도 더했다. /나주=김영수 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 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센스톡 통역기

내 스마트폰에
통역칩을 쏘~옥!

해외여행, 출장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수 있는
다국어 통역 **센스톡 (16개 국어 양방향 통역(번역))**
"인터넷, 와이파이, 데이터 요금없이 양방향 동시통역!"
외국어 전혀 몰라도 외국인과의 대화가 술술~
세계인과 통역하자(내손안의 통역비서)



특별행사
센스톡 구매시
히든케어
허리보호벨트
(특허 제10-1392404호)
45,000원 상당 증정

본점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4번지 임동오거리
Tel. 062-522-2000

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54 금호월드1층139호(정문입구)
Tel. 062-350-8397